

연중 제14주일

성 김 대건 안드레아 대축일 미사

기도서 496 면(A해)

제1독서 : 2역대 24, 18-22
제2독서 : 로마 5, 1-5
복음 : 마태 10, 17-22

숲정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홍보국
인쇄관 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칼론



농사꾼의 살가죽

김 병 환 신부

“저는 농사꾼입니다. 저는 뼈와 살가죽만 남았습니
다. 저의 마음은 슬픔과 피로움으로 아주 까맣게 타버렸
습니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루마니아 출신 C. V. 게오르
규 신부의 작품 25시에 나오는 말이다. 작품에서 주인공
요한 모리츠는 또한 이렇게 말을 한다. “저는 하나의 인
간입니다. 저의 생명과 저의 그림자는 바로 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탱크와 총과 돈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저의 생명과 저의 그림자에 손을 댈 권리는
조금도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한평생 소원이란 다름이
아니라 아내와 자식과 함께 농사짓고 사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한다.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요한 모리
츠, 그는 다만 서민이라는 이유 그것만으로 인간에게 부
여된 모든 권리를 권력있는 자들에 의해서 수탈 당하고
갈 지자 걸음으로 14 군데의 수용소를 전전하며 비틀거리
는 삶을 살아간다. 인간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송두리 채
빼앗기고 25시에 살고 있는 삶, 이러한 삶은 비단 게오
르규의 작품세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우리
는 우리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삶을 많이 보아 왔
다. 왕족들 싸움에서 어린 조카가 삼촌의 손에 죽는 것
을 보았고, 정치와 권력의 쟁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앙인
들이 무더기 죽어간 것을 보아왔다. 140여년 전 성인
김 대건 신부님도 그 누구의 힘에 의해서 당신의 생명과
그림자를 빼앗겼다. 누구를 괴롭힌 일도 없고 도둑질이
나 사람을 죽인 일도 없었고 누구를 죽인 일도 없었는
데도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잃으셨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자기의 모든 것을 잃고 빼앗기
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게오르규의
아픔보다 더 많은 이들이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타인의 강압
에 의해서 풍년가를 부르며 평과리를 치지만 뼈와 살가
죽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농민들, 산업전사라는 훈장을
달고 박수를 받으면서도 배고픔에 허덕여야 하는 노동자
들, 정녕 이들에게도 인간의 삶인 24시간의 삶이 주어질
런지... 공직자들이 살아가기에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사회, 그들이 법을 만들고 그들이 조사를 하고 그들이
판결하는 사회이기에 아침과 비리가 범람하는 사회이다.
조그마한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을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라고 누가 이야기 한 적이 있다. 보이지 않
는 속에서 착취와 부정축제를 일삼으며 우리 사회에 독
버섯처럼 군림하고 있는 한 우리 서민의 삶은 살가죽만
남는 25시의 삶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성인 김
신부님의 축일을 맞이하여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자.
(순창 주임신부)



정화 차원

도로망이 전국을 이리저리 뚫어 놓으니 우리들의 행동
폭이 넓어졌다. 산업이 활발해지고, 덩달아서 관광사업
도 호시절을 맞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바가지 상
훈이 문제가 되어 당국은 이를 정화 차원에서 다룬다고
한다. 사실 모처럼 시간을 내고 주머니를 털어서 분위기를
전환을 위한 관광에 나섰다 바가지 요금에 시달리다
보면, 이는 완전히 기분을 잡치게 하고 만다. 어쨌거나
바가지 상훈을 바로잡는 일은 바람직하고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제5공화국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정화(淨化)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다. 그리고 헌법은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
듯이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신설하고 있다. 사실 「더러
운 것이나 불순한 것을 없애고 깨끗하게 하는」 정화는
백 번 필요하다. 개인은 물론 온 사회를 지저분하게 하
는 일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모
두를 비하시킬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진구렁텅이로 몰
아넣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몽고 고비사막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은 황하를 한 시도
맑게 하지를 않는다. 이백여 미터나 쌓인 풍적토(風積土)
를 씻어 내리는 황하가 어찌 맑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
서 「중국의 황하가 늘 흐리어 맑을 때가 없었다는 데서
나온 말」을 우리는 백년하청(百年河淸)이라고 한다. 이
를 보면 근본적인 치유가 없는 한 황하는 맑아지기가 어
렵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서민들이 아무리 정화가 되어도 위에서 백성들을 이끌
어야 할 소위 지도층 인사에게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맑
은 사회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물을 찢고 빠져
나가는 가물치가 내노라고 위용을 뽐내는 한, 작은 고기
들도 정화라는 말마디를 결코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이다.

숲정이 산책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전주교구 성지①



은경축을 맞이하며

초 남 부 락

배 영 근 신부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은 이 민족을 잊지 않으셨다. 주님은 어둠의 그늘 밑에 누워있는 이 겨레에 구원의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

1784년 이 땅에 구원의 소망인 교회가 세워지자 구원의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조용한 환희가 번졌고 이 고장 유 향겸 역시 주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다.

호남 평야의 거부인 유 향겸은 평소 벼슬길에 꿈을 품고 서울을 출입하고 있었다. 당시 유명한 학자 중 한 사람인 권 일신은 지식과 덕망이 높아 전국 각처에서 모여든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유 향겸은 권 일신의 제자가 되었다.

한국에 교회가 설립되자 권 일신이 입교하게 되었고 권 일신은 조선의 남쪽 땅 전라도에 천주교의 튼튼한 기초를 세울 계몽으로 제자인 유 향겸을 입교시켰다. 하느님의 뜻은 깊고 어두워 신비로웠으니, 세상과거(世上科擧)의 꿈을 홀으시고 천상과거(天上科擧)에 급제시켰고 유 향겸은 호남지방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의 고향은 지금의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남제리 초남부락으로, 전주에서 버스를 타고 서쪽으로 두어 마장을 가다가 원동에서 내려 다시 서북쪽 솔밭길로 곰방대 한 대를 피울 거리를 가면 들을 보고 사는 조그마한 마을인 호남의 나자렛 고을 초남부락이 있다.

유 향겸은 평소 어진이를 좋아하고 착한 일을 즐겨하는, 생활에 두툼한 인품과 덕망의 소유자로 원근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의 재산이 어느 정도이고 후덕이 어떠한 지는 「참살배미 선 세 마지기」가 말해 주고 있다.

유 향겸은 집 안 권속뿐 아니라 자기집을 찾아오는 방문객과 전담을 돌보는 일꾼들에게도 전교하였으니, 1801년 신유 박해 때 체포된 200여 명의 신자가 대부분 그가 전교한 사람들이었다. 유 향겸의 인간됨과 재산은 하느님이 사용하신 유일한 도구였다.

유 향겸과 초남 부락이 더욱 빛나는 것은 그의 큰아들 유 중철(중선) 세자요한와 며느리 이 순이 누갈짜가 역사의 가장 감동적인 동정 부부생활을 여기서 이룩한 것이다.

지금 초남 부락은 천주학생이를 씨도 남기지 말라는 업명을 지키고나 있듯이 신자 없는 마을이 되었고 그의 전담들은 새 주인을 만나 묵묵히 제 천성을 다하고 있을 따름이다.

제가 25년간 사제로서의 길은 오직 주께서 부족한 인간을 주님의 도구로 선택하시어 오랜 세월을 꿇없는 사랑과 인내로 보살펴 주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선택한 길을 한번 쬐은 후회 할 수 있지만 주께선 당신이 선택하심을 후회 하시지 않으시고 본인이 사명을 회피하려 해도 놓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하를 받기 보다는 하느님께로 향한 충실과 사랑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미비하고 부족한 사제를 통하여 깊은 신앙으로 참을성 있게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신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부족한 사제들과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심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인들을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손님으로 맞이할 줄 아는 것은 하느님과 가깝게 있다는 확실한 표시입니다. 이번 은경축은 한국의 신자들이 우리 외국인들을 자기 사람과 같이 받아들여 줌으로써 아브라함과 같이 하느님과 가깝게 됩니다.

속담에 "10년이던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신부님 한국사람 다 되었다"고 말합니다. 듣기 좋고 고맙습니다.

우리 좀더 신앙으로 한 걸음 나아가서 바오로 사도의 말씀과 같이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 28).

그리고 "인간(人間)"이란 말 자체는 동양적인 깊은 지혜를 포함합니다. 참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끼리의 관계 문제입니다. 23년 동안 진정으로 한국사람이 되었는지, 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만은 확실합니다. 제가 본국에서만 살았다더라면 현재와 같은 인간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많은 한국 사람을 만남으로써 좀더 깊이 있고, 넓은 포용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에 여러 만난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구청 비서신부>

교회 간행물을 읽읍시다

가톨릭 신문, 경향잡지, 생활성서

구독신청 : 520-전주시 서노송동 560-3

천주교 전주 교구청 홍보국(0041-3)

대금지불 : 직접 홍보국에 혹은

우편대체(400010-31-9026907) 이용

경양식 전문점

마 야 개업 : 7월 2일(월)

피로연, 축하연, 기념연회, 제모임, 사은회, 신심단체의 모임장소를 무료 제공.

우아하고 경제적인 자 단체의 기념 파티는 저렴한 가격에 출장 서비스도 하여 드립니다.

(중앙성당 건너편 삼익가주 지하)

☎ 74-8516-6-6682

유 석종(스태파노) 김 중열(막달레나)

아카시아 풀·로얄제리

생산가로 드립니다

한성양병원

김 자 영(토마스)

전주 경기전 옆

☎ 2-2731

군산 태 광 약 국

☎ 1800

구시장 사거리

교우 여러분의 만성질환 및 건강상담

□ 교황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아, 여러분 자신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나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신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완전한 인간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미래 세계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거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 '84 여름 「산간학교」

교구 교육국에서는 작년에 이어 학생사목의 부분적 제시를 위하여 금년에도 교구차원의 「산간학교」를 아래와 같이 개설한다. 참가할 본당은 입교원서와 신청서를 11일까지 교육국으로 제출하시면 된다.

일 시: 7월 28일 오전 11시~31일

장 소: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고산국민학교)

대 상: 본당 신부님의 추천을 받은 중·고등학생

준비사항: ①학생 약 20명당 지도자 1명 ②조별 준비물-텐트(고등학생만), 취사도구, 부식물, 후라쉬, 연료, 촛극(5분) ③개인 준비물-간편한 옷차림, 운동화, 수영복, 설탕, 우의(우산), 모포, 여벌옷, 배낭, 세면도구, 성서, 필기도구, 쌀 2되, 수저, 식기, 마른반찬 ④교통편은 본당에서 해결

⑤참가비: 중학생-2천원, 고등학생-1천5백원

⑥기념사츠-2천원 (주문에 따라 제작)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한 화보

교구 홍보국에서는 가톨릭 신문사에서 발행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 화보를 보급하고 있다. 이 화보는 영원히 역사에 남을 교황성하의 방한을 컬러사진과 함께 교황님의 말씀, 관련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구입방법: ①직접 교구청 홍보국에서

②우편대체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곧 소포로 보내드립니다.

(우편대체: 400010-31-9026907

520 전주 서노송동 560-6 천주교 전주교구청 홍보국)

③본당 사무장님을 통하여 매금을 지불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 격: 18,000원 (단체로 20부 이상 주문하실 경우 20% 할인하여 드림)

※ 선불에 한하여 우송해 드립니다.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안내

- 성 프란치스코: 아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140분, 6만원
-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의 생애. 90분, 4만5천원
- 성 토마스 모어: 영국이 낳은 위대한 성인 토마스 모어의 생애. 30분, 2만원
- 부활의 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 사도가 함께 갇힌 소년에게 예수는 어떤 분인가를 자신의 체험담을 통해 가르쳐 주는 내용. 60분, 2만5천원
- 파부의 헌금: 홍콩의 빈민가에서 살았던 어떤 할머니의 실화. 20분, 2만원
- 이웃: 신약성서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현실 안에서 재득하게 해준다. 30분, 2만원
- 재물: 물질주의에로 흐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재물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 주는 내용. 30분, 2만원
- 잔치: 루카복음의 잃었던 아들의 이야기를 현실 안에서 재득하게 한다. 30분, 2만원  
취급처-520 전주 서노송동 639-3 성바오로 서원 ☎ 3398

요십이 (570) 김병오



학원생 수시 모집 (주·야)  
철저한 개인지도  
V.T.R로 삼 교육화  
**현대 미용학원**  
전주시서노송동(중일성당 옆)  
원장: 김 테레사(금순)  
☎ ④ 9206 · ⑤ 5289

젊음의 패션 스포츠화!  
무지개 신발  
스포츠웨어, 가방, 미니  
스용플과 양말도 판매

**SS SPORTS** 위크엔드와 슬러지저

**이아아아아스포츠**  
구,역전오거리 ☎ 4-3824  
전아가다(정숙)

• 동양란 전문    • 수입분재 기구 일절  
• 관엽식물 일절    • 농장 직영

**중 양 화 원**  
(장소: 동서관통도로 구법원 옆)  
꽃꽂이 연구실 개강  
※ 교수분들 특별 우대  
대표 심 스테파노 ☎ 6-4700

대중음식점 · 연회석완비  
대형에어콘 가동

**대 건 회 관**  
전북은행 본점 후문앞  
(구, 미가도)  
☎ 6-7566  
김 한 영(안토니오)  
하 정 희(엘리사벳)

**희 소 식**  
독사뱀 물린 사람 전문  
치료 5대째  
단시간 치료 완치함  
연락처: 전주시 건미동  
1가 전당리 시내버스종점  
☎ 5-3544  
송 준 의(발라바)

(4) 순 정 이



1. 시간학교 지도자를 위한 캠프실습: 14일 오후 5시(공문 1시를 정정함)~15일, 집결지-고산성당
2. 교리교사 하기 수련회: 14일~17일, 장소-완주군 신촌 야영장  
참가비-(도시) 1만원, (그외) 9천원, 준비물-미사도구, 필기도구, 세면도구, 소창집, 쌀 3되  
집결-14일 오후 2시30분, 가톨릭 센터
3. 하나회(장애자 모임) 월례회: 15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 센터

- ☐ 전화번호 변경: 황등-사제관 (52) 2541, 사무실·수녀원-(52) 7634, 신용조합-(52) 5923
- ☐ 축! 영명: 성 에릭(10일)-윤 에릭 신부님

성 베네딕도(11일)-박 성운·김 반석·김 병운·김 용태·현 유복·권 이복·유 영도신부님  
성 보나벤투라(15일)-이 수현 신부님

제 1 지구 각 분당 소식①

(중앙)

전화 ⑥1711~3  
주임 신부 윤 정 현  
보좌 신부 나 춘 성  
사도 회장 김 인 철

1. 꾸리아: 금일 오후 2시
2. 삼지회: 11일 저녁미사 후
3. 반장 회합: 13일 어머니미사 후
4. 교구 시간학교: 28~31일, 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 바람
5. 울뜨레아: 다음주 공식미사 후
6. 돼지저금통: 정성을 다해 봉헌합시다.
7. 벽돌봉헌: 22,775장 봉헌
- ☐ 지난주 봉헌금: 1,007,541원 교무금: 699,000원  
특별헌금: 김정화 생일자사(5천원)

(노송동)

신부 ⑥0969  
수·사 ②7932  
주임 신부 김 흥 태  
보좌 신부 이 성 우  
사도 회장 이 흥 재

1. 축! 분당신부님 영명: 11일 성 베네딕도 축일  
분당 사목에 애쓰시는 신부님을 위해 많은 기도바람
2. 점성과 희생으로 새성전 건립하자  
150만원-황보용남, 100만원-양민석·이상용, 24만원-이철재·이계순·강덕자, 30만원-최복래, 40만원-이복자, 25만원-박충규, 28만원-우정순, 20만원-김대홍·송순복·배복래·조은희·김일순·김철문·유영수, 소계: 6,850,000원, 누계: 70,920,000원
3. 꾸리아 회합: 15일 오후 2시, 빠짐없이 참석하시다  
각 Pr단장 회합-13일 저녁 8시(공소Pr 제의)
4. 공소 순회미사: 14일 저녁 8시, 다리리공소
5. 건축 재정분과 위원회: 오늘 공식미사 후  
해당 위원님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6. 감사합니다: 아파트 성전 위해 선종기 1대 기증하신  
강세시리아에게...
- ☐ 지난주 봉헌금: 433,715원 아파트: 101,500원  
지난주 교무금: 489,000원 아파트: 120,000원

(덕진)

신부 (3) 2182 주임 신부 김 봉 희  
전화 수녀 (72) 1222 보좌 신부 김 용 안  
사무 (72) 6259 사도 회장 양 상 열

1. 오늘의 모임: L.M. 꾸리아-오후 2시  
반장·구역장 모임-오후 4시
2. 진복회·반석회 부부 친목 단합대회: 14일 오후 3시  
출발, 동상저수지(대아리), 준비물-렌트·남시대
3. 첫영성체반 및 아동 예비자교리반 특별지도  
토요일·일요일 오후 4시(14일부터)
4. 하기수련대회 실시(예고)  
중·고생 캠프-25~28일, 청년연합회~28~30일  
성인 남자-30~8월1일, 성인 여자-8월1~3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5. 금주 분당청소: 청년연합회(14일 오후 3시)
6. 다음주 모임 예고  
성모회(분당), 반석회(대아리)에서
- ☐ 지난주 봉헌금: 502,170원 교무금: 806,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 신부 권 영 균  
사·수 2-5238 사도 회장 김 성 원

1. 성우회 야외행사: 오늘 공식미사 후, 상관 쌍다리  
빠짐없이 참석 바람
2. 어머니성가대 단합대회: 9일 오전 9시 출발  
장소-관촌면 방수리
3. 교리교사 연수회: 14~17일, 신촌 캠프장
4. 교리교사 단합대회: 9~11일
5. 예비자교리: 주일-공식미사 후(김수녀님 지도)  
평일-수요일 오후 8시(김수녀님 지도)

6. 빈첸시오회 임원개편  
회장-김순희, 부회장-김복수, 서기-황만금·은희영, 회계-정운주, 감사-최복수·장마리아, 봉사-조정숙·신영희
7. 성당 선종기 기증: 오장수 1대, 정준희 1대  
계속 협조 바랍니다
8. 200주년 기념부채 판매: 1가정에 1개씩 구입하세요
9. 11월(수) 성 베네딕도 축일
10. 금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천 건 ②정동민  
차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이갑진 ②김성원
- ☐ 지난주 봉헌금: 143,080원 교무금: 543,800원

(서학동)

신부 ⑥8307번 주임 신부 김 동 준  
수녀 ②276번 사도 회장 김 낙 균

1. 모임: 반장님 월례회-오늘 공식미사 후, 꾸리아-오늘 오후 2시, 울뜨레아-10일 저녁미사 후, 성모회-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매월 세례주 목요일, 10일전에 신청 마감
3. 첫영성체 교리: 19일 오후 5시부터, 특히 신청 바람
4. 병자방문: 매월 세례주 목요일, 미리 신청 바랍니다
5.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박경환 ②김병희
- ☐ 지난주 봉헌금: 351,840원 교무금: 373,600원

(순정미)

전화 ⑦7366 주임 신부 김 종 길  
수·유 ⑥9567 사도 회장 김 수 겸

1. 꾸리아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모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구역모임: 6월 중 모임 일정 알려주기 바람
4. 여름 성경학교: 23~28일까지, 적극 후원 바랍니다
5. 유치비 중간결산(6월말)  
교무금 예산액-28,250,000, 결산액-11,270,850원  
주일금 예산액-9,000,000원, 결산액-5,286,882원  
수입 총예산액-38,437,000원, 결산액-17,329,335원  
지출 총예산액-38,437,000원, 결산액-16,249,471원  
6월말 현재 잔고-1,079,864원
6. 금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기도-이귀례·유희자  
차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기도-김경주·고혜자
- ☐ 지난주 봉헌금: 200,725원 교무금: 404,700원

(전동)

신부 ⑥6208 주임 신부 김 치 삼  
전화 사무 ③3222 보좌 신부 정 양 현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김 병 오

1. 자모회·장우회: 공식미사 후
2. 성화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꼬미시울: 다음주 오후 2시
4. 성마리아 꾸리아: 다음주 오후 4시
5. 대학생회 임시총회: 8일 공식미사 후
6. 불우이웃돕기 성미운동 협조 바람
7. 주일학교 교리교사 수련회: 14일~17일
8. 임 마리로사 수녀님 피정중: 많은 기도 바람
- ☐ 지난주 봉헌금: 851,960원 특별헌금: 223,180원  
교무금: 516,000원

(호자동)

신부 75-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수녀 2-4804 사도회장 이 교 성  
사무 2-0915

1. 예비자 입교 환영식: 15일 오전 10시
2. 사목방문: 11일 오전-에그린아파트
3. 성서감각: 출애굽기 29~32장
4. 축하합니다: 애령회장-김동선(야교보)
5. 클라라회: 오늘 공식미사 후(유치원)
- ☐ 지난주 봉헌금: 335,920원 교무금: 343,000원